

Jeep Story

2020 Vol.09

Jeep Story 2020 Vol.09

THE ADVENTURE BEGINS



QR코드를 찍고 Jeep를 경험해보세요!
www.jeep.co.kr   

Jeep®

THE ADVENTURE BEGINS

Jeep Story

2020 Vol. 09



Jeep Lineup



2020 Vol.09
Jeep Story
Content

06
The Adventure Begins
Moment of Winter

온세상이 공공
얼어붙은 겨울,
Jeep Wrangler
세상이다. 매서운
겨울 바람과 흰눈이
몰아쳐도 운전 손맛
하나는 끝내준다.
강원도 인제에서
만나는 Wrangler의
겨울 이야기를
만나보자.



16
My Jeep Story I
Jeep Revolution

박성환 |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한 편의 광고를 만들기 위해 막연한 상상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해결사, 박성환.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의 창의력으로 태어난
세상에 딱 한 대뿐인 Jeep와 인사를 나눠보자.



40
Test Drive
Renegade Limited 1.6 TD

자유와 모험의 아이콘, Renegade가
1.6 터보 디젤 엔진으로 나타났다.
한겨울 어드벤처를 꿈꾸는 청춘들이여,
이제 Renegade와 만날 시간이다.



48
Closer Look At Jeep
Winter Safety For Jeep

사계절 내내 즐거운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Jeep라도, 계절별 관리는 필수. 안전 운행을
위한 겨울철 차량 관리법을 알아보자.

50
Adventure in Social Media

52
Campaign | Jeep Wave

54
Brand News

56
Jeep Showroom Guide

58
Jeep Lineup

63
Service Center

**THE
ADVENTURE
BEGINS**

2020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조금 특별하
다. '10'이라는 숫자가 만족의 의미를 가
지고 있기도 하지만, 시작과 끝을 동시
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는 'The
Adventure Begins'라는 테마로, 또다시
새로운 모험의 원년을 시작하고자 한다.
1년 365일 신나는 모험과 만나는 일상,
Jeep와 함께 시즌2 어드벤처를 즐겨보자.



26
My Jeep Story II
Adventure Never Ends

오창석 | 배우
어느덧 연기 경력도
10년을 훌쩍 넘은
중견 배우, 오창석은
Jeep 오토로서의 경력도
만만치 않다. 배우가 아닌
Jeep 마니아 오창석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여보자.



32
My First Ride
Micro Adventures

최신엽
| 루엠티븐 디자인 실장
어떤 모험도 무게와
부피가 중요치 않다.
그저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할 뿐. Jeep와
해먹 하나로 누비는
해먹 디자이너와
Wrangler 유랑을
떠나봤다.

The Adventure Begins

THE ADVENTURE BEGINS

Moment of Winter

미식가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한다. 방랑이 취미인 여행자는 길 위의 짜릿함 역시 겨울이라고 한다. 베테랑 드라이버들은 Jeep Wrangler의 손맛이야말로 한겨울이 최고라 손꼽는다. 그렇다. 혹독한 추위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패기는 All New Wrangler Rubicon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겨울 바람과 흰 눈이 휘몰아쳐도 손맛 하나는 끝내주는 Jeep 어드벤처 강원도 인제로 떠나봤다.

‘모험’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하는 여행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Wrangler의 모험 도전장을 받게 된 장소는 다름 아닌 강원도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라는 상여소리가 이곳으로 배치받은 군인들의 한탄으로 대신했을 만큼, 인제는 험준한 산세와 매서운 겨울 추위의 대명사다. 누군가 빛의 존재를 제대로 알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했듯, Wrangler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강원도의 깊은 산중 ‘인제’로 들어가는 일은 여행보다 속명에 가까웠다.

이른 새벽, 남양주 톨게이트를 지나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올라 속력을 높였다. 주행 조건에 따라 2륜 구동에서 4륜 구동으로 자동 전환하는 Wrangler의 풀타임 모드로, 온로드에서도 매끄럽게 박차고 나간다. 성능과 연비까지 동시에 갖춘 2.0L 터보 엔진에 차체를 타고 흐르는 거센 바람 소리까지 더하니, 모험을 위한 서곡처럼 비장하게 느껴졌다. 춘천을 통과할 즈음엔 갑자기 빗방울이 흩날리고 하늘이 점점 인상을 쓰기 시작한다. 오후라, 하늘도 Wrangler의 기운을 읽은 게로구나.

인제군으로 접어들니, 제법 빗방울이 굵어졌다. 출발부터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온 터라 사실 날씨쯤은 인중에 없었다. 강원도 인제군은 태백산맥 자락을 타고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굵이 굵이 산자락 사이로 계곡투성이다. 또 동해 바다에서 몰려온 바닷바람이 설악산을 타고 올라, 인제 계곡 바람과 만나는 통에 인제표 겨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게다가 완전한 내륙에 자리하고 있어 물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내린천과 소양강 줄기가 꺾여 나가는지라 산과 물이 두루 조화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제를 하늘이 내린 천혜의 고장이라는 의미로, ‘하늘내린 인제’로 부르는가 보다.



다시 가늘어진 빗방울을 맞으며 고사리 피아시 계곡 방향의 사잇길로 접어들었다. 거친 기운의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가끔씩 고르지 못한 길도 나왔지만 재빠른 기동성으로 Wrangler의 주행은 흔들림이 없었다. 땅 위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만, 어떤 차에 몸을 싣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길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험난한 길도 유연하고 부드럽게 넘겨버리는 Wrangler의 여유 덕에 핸들을 왼 손도 든든했다. 경사진 길을 무난하게 오르긴 했으나, 오르막 중턱부터 공사 중이라 더이상 진입이 불가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차를 돌리려니, 눈비가 약간 섞여 내리기 시작했고 거센 바람도 한 겹을 더했다. 곧이어 놀랍게도 하늘이 갈라지며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세상에, 눈과 비, 바람, 그리고 벌어진 하늘 틈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살까지 급기야 모험 종합 세트를 만난 것이다. 천지개벽의 느낌이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하늘은 모험 찾는 자에게 모험을 던져주는구나 싶었다.

이 비현실적인 날씨는 우리가 달리는 길 위에 군데군데 물웅덩이를 만들고 비포장길은 아예 진흙 반죽길로 변신시켰다. 75년

의 연륜으로 다져진 4륜 구동의 Wrangler는 물러섬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이미 가장 험난하고 거친 지형에서 테스트를 거쳐 오프로드의 훈장 '트레일 레이티드(Trail Rated®)' 배지를 단 녀석이 아니던가. 일반 탈것으로는 어렵도 없는 진흙탕길을 고고하게 읽어냈고, Jeep 고유의 높은 지상고 덕분에 갈대로 가려진 곳까지 수월하게 굽어볼 수 있었다. 진흙을 박차고 나갈 때의 짜릿함은 차라리 전율에 가까웠다. 코를 치켜들며 약간 자만할 즈음, 크고 작은 돌과 바위와 함께 자갈길까지 눈앞에 등장한다. 다시 Wrangler의 숨을 고르고, Rubicon만의 오프로드 핵심기능 '스웨이 바(SWAY BAR)'를 분리해 서스펜션 기능을 높였다. 꿀렁꿀렁 돌 위를 잘도 타고 오른다. 스웨이 바의 스웱이라니 완벽한 리듬감이다. 아, 인제의 모험이 자못 흥미진진해진다.

제법 강도 있는 코스를 빠져나오니 시장기가 훑 밀려왔다. 인제의 대표 먹거리로 유명한 황태와 두부를 선택했다. 지형과 위치 덕분에 독특한 바람과 큰 일교차를 지녀, 바람으로 맛있는 황태를 말리고 기온 차이로 콩의 단백질을 높인단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두부 전골이 나오자, 뜨끈한 국물부터 한 숟가락 원샷을

The Adventure Begins





The Adventure Begins

감행한다. 식도를 타고 내리면서 온몸을 순식간에 녹여준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두부맛은 마치 모험을 즐긴 자들에게 인제가 하사하는 특별식 같았다. 매콤한 짜박두부는 목과 식도를 강하게 후려치는 알싸함으로 연신 물을 들이켜야 했지만, 입안의 혀도 나름 모험을 치뤘낸 기분이었다. 또 보얗게 우러난 황태국에 밥 한 공기를 말고 황태국이 한쪽을 엮으니, 이 또한 인제의 맛이로구나.

다시 인제 어드벤처 길에 올랐다. 비와 눈은 약간 소강 상태였지만 하늘의 절반은 먹구름이고 절반은 햇빛이다. 문득 고개를 돌리니, 무지개 하나가 산자락의 소나무를 배경으로 두둥실 떠올랐다. 하늘조차 Wrangler를 인정하기 시작한 걸까? 변화무쌍한 날씨만으로도 모험은 이미 충분하겠으나, 아직 Wrangler는 성에 차지 않았다. 국도를 따라 달리는 풍경 속에 거대한 설산 봉우리가 눈에 잡혔다. 설악산이었다. 봉우리를 하얗게 덮은 것으로도 눈의 기운이 감지됐고, 이내 한계령으로 내달렸다. 깊은 산길이 그렇듯, 코너링이 심한 오르막길이었다. 산중인데다 먹구름으로 가려진 한계령 길은 평소보다 심하게 어두웠다. 주변은 안개에 휩싸이고 습한 기운이 대기 중에 가득했다. LED 헤드램프와 안개등이 우아하게 각을 틀어 길을 비춘다. 어느 순간 깎아지른 듯한 급회전 구간을 돌고 나니 겨울왕국을 방불케하는 하얀 눈세상이다. 사방의 나무들

한계령 휴게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로 1
033-672-2330

은 온통 눈꽃을 피우고 Wrangler 위로도 하얀 눈이 실 새 없이 평평 내린다. 갑작스럽게 내린 눈에 주변 차들은 아우성이지만, Jeep 가문의 Wrangler군은 끄떡없다. 악천후 속에서도 4x4 시스템으로 여러 주행 조건을 발빠르게 처리하고 끝내주는 접지력으로 눈길까지 평정한다.

한계령 휴게소에서 잠깐 설경을 감상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 이보다 더 극적인 모험이 있을까. 그저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고 거친 길 위를 넘나드는 드라이빙 정도만 생각했던 겨울 모험 여행이었는데, 인제가 허락해 준 파란만장 모험 코스를 돌며 Wrangler의 성능을 제대로 맛보는 시간이 되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을 빌자면, 모래에 갇혔을 때 타이어 공기를 빼 차의 높이를 낮추라 했다. 그래야 모래 위로 안전하게 올라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인제에서의 모험 여행을 마치고 나니, 과감하게 그에게 얘기할 수 있겠다. 사막을 건너든 눈길을 헤치든 진흙탕을 지나든, 오직 All New Wrangler Rubicon이 답이라고. 끝으로 Wrangler의 모험 도전장을 흔쾌히 받아준 인제에게 감사를 전하며, 더 없이 뜨거운 겨울의 순간을 기억에 묻었다. 인제야, 다음 겨울도 Wrangler의 모험을 부탁해. **Jeep**



MY JEEP Story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21세기는 상상력에 뿌리를 두는 일이 부지기수다. 4억이라는 판매부수를 기록한 J. K.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도 작가의 상상력 산물이고, 장난감에 영혼을 불어넣어 영화팬을 울고 웃게 한 토이 스토리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극강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버무린 촌철살인의 30초 미학이 있으니 바로 '광고'다.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박성환은 그 한 편의 광고를 만들기 위해 막연한 상상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해결사다. 가장 애정하는 Jeep Wrangler에도 유감없이 상상력을 발휘했으니, 박성환의 특별판 Jeep를 만나보자.

Jeep Revolution

콘티라이터, 섬네일 작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그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어떤 광고든 그의 손을 거치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렴풋한 생각도 모양새를 지니고, 한 편의 예술로 시각화되어 소비자들에게 소진된다. Jeep라고 예외겠는가. 그의 손을 거쳐 이 세상에 딱 한 대뿐인 Jeep Wrangler와 인사를 나눠보자.

약속 시간이 다 될 무렵, 저 멀리 블랙 Jeep 한 대가 달려온다. 뭔가 예사롭지 기운이 뿜어진다. 점점 또렷한 윤곽을 드러내며 멈춰섰을 때, 모두 입이 떡 벌어졌다. 같은 Wrangler라도 오너들의 개성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이란 건 익히 알고 있으나, 박성환표 Wrangler는 완전히 판이 달랐다. 시크한 블랙 컬러에 살짝 가미된 레드 라인은 히어로물에서 봄직한 포스였다. 아니나 다를까, '슈퍼히어로 브루스 웨인이 Jeep를 탄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만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 덕에 25년 동안 광고계에서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몸담고 있는 박성환은, 일명 '그림쟁이'라는 닉네임으로 Jeep 마니아들에게 꽤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2010년 한국타이어 광고를 담당하면서 '오지를 가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라는 콘셉트로 진행했었어요. 그때 어떤 차를 등장시킬까 고민하다가 Jeep를 선택하게 된 거죠. 미국 현지 로케이션에서 Jeep를 섭외해 배우 장동건 씨와 광고를 완성했구요. 근데 이 광고가 방송되면서 타이어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Jeep'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 됐어요. 저 차가 뭐야, 정확히 어떤 차냐, 끝도 없이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도 Jeep를 타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잘 어울린다고 하니 저도 덩석 받아들이는 거죠. 어찌됐든 광고 덕에 Jeep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광고 속에 등장했던 모양새로 꾸미기 시작한 거죠."

해당 광고의 내용인즉슨 도심 속 러시아워에 갇혀 있던 주인공이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끄고 사잇길로 빠진 후 계단을 오르고 바위를 올라타는 질주신이 이어진다. 절벽 위에 올라선 주인공이 Jeep와 함께 발 아래 펼쳐진 자연을 만끽하며 끝난다. 발견의 첫 번째 조건은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강렬한 카피와 함께였다. Jeep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걸 보니, 광고를 제작하는 중 부지불식간에 Jeep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렇게 진짜 광고 속 주인공이 된 그는, 오토로서 즐기는 Jeep

박성환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영화와 광고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림쟁이로,
대한민국의 튜닝
문화를 이끄는
리더로, 맹활약 중.

*아니나다를까,
박성환의 Jeep는
'슈퍼히어로 브루스 웨인이
Jeep를 탄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만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의 신선한 문화에 더 매료됐다. 특히 매년 열리는 Jeep Camp의 열혈 참여자로 엄지를 치켜세운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오로지 Jeep라는 공통 분모로 모여 그때만큼은 모두 평등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만나서 수다를 떠는 대신 활동적인 일을 도모하는 점 또한 의미있게 다가왔다. 중년 나이에 이런 놀라운 인맥을 갖게 되는 것 또한 Jeep만의 오지랖이다.

"Jeep는 의외성이 많은 차예요. 외국에서는 Jeep와 튜닝이 아예 수평적 관계를 이룰만큼 낯것 그대로 출시되는 형태라, 오너들이 제각각 개성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튜닝은 '나만의 자아'를 표현하는 한 방식인데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배우 이병헌이 수트를 깔끔하게 입고 댄디하게 싸우는 신처럼 걸모양새는 단정한 신사지만 내공이 엄청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 제 자아를 핑계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네요.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제 아이들이 면허를 딸 나이가 되면, 선물로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요. 저 정도 차면 나름 의미도 있고 히스토리로도 충분한 것 같네요."

시계나 만년필, 그리고 클래식 자동차의 대물림은 꽤 유서깊은 가족의 관습이다. 평범한 탈것을 넘어 시간의 연속성을 담은



My Jeep Story I





귀한 차로, 분명 아이들에게 그 매력까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의 자아 위에 본인의 자아를 덧입히는 일로 보답할런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 손품 발품을 팔아 원하는 부품을 하나하나 찾거나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 구현해 낼 줄 아는 실력 덕분에 박성환표 Wrangler는 지금 해외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애프터 마켓에서 여전히 탐을 고수하고 있는 Jeep의 위상으로, 그들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 애정 표현의 방식으로 튜닝을 선택한 그는 아직 국내 시장에서 튜닝 문화가 소원하다 하지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우스갯소리 대신 '튜닝의 끝은 튜닝'임을 못박는다.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는 간단히 말하면 설계자, 혹은 도면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그

림을 그리지만, 단순히 생각을 그림으로만 그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작은 상상까지 포함해 3D로 구현해내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랄까요, 콘티라이터라고도 하는데요, 한 편의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콘티 작업이 수없이 이뤄지구요, 조명이나 렌즈 종류, 구도에 대한 정보까지 세세하게 담겨 디테일도 꽤 요구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그려서 작업을 했었지만 최근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만약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Jeep를 한 편의 광고로 만든다면! 답 대신 그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순식간에 하얀 태블릿 화면에 Wrangler가 모습을 드러내고, 작은 섬네일 컷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Jeep Wrangler의 속도감이 전해진다.

누군가의 막연한 상상을 시각화하는 작업은 보통 일이 아니다. 상상보다 위에서 굽어볼 줄 알아야 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전체를 꿰뚫어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는 그럼에도 사실상 철저히 숨겨져 있다. 겉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은 조력자로서 광고의 큰 축을 담당한다. Wrangler가 그에게 숨은 조력자로 길 위의 동지가 되어준 것처럼 말이다.

“인생에 있어 큰 획을 하나 그어보자는 게 제 모토입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디지털 바람이 불지만, 전 여전히 아날로그를 즐깁니다. 손맛과 구력의 힘을 믿거든요. 또 바탕이 좋은 탄탄한 실력자로 외국 스태프와 함께 작업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

으로, 이 분야의 큰 획을 긋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진정한 튜닝 문화를 이끌어 제 Wrangler에게도 제대로 된 오너가 되고 싶고요, 이 두 획을 제대로 그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라이프 잡지의 폐간호를 남겨두고 벌어지는 내용의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도 잡지의 모토가 여러 차례 언급된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박성환이 굶고자 하는 인생의 획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다. 언젠가 그의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 Jeep의 획과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의 획이 하나되어 맞닿을 듯 하다. **Jeep**



MY
JEEP
Story

오창석은 2008년 데뷔 후 드라마 <오로라 공주>, <왔다! 장보리>부터 최근작 <태양의 계절>에 이르기까지 어느새 연기 경력이 10년을 훌쩍 넘은 중견 배우다. 연기자의 길만 걸던 그가 최근 <나 혼자 산다>와 <연애의 맛> 등의 예능 나들이로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흑자는 그가 분했던 여러 주인공 이미지 때문인지,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일 거라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속내를 들춰보면, 스포츠에 열광하는 농구 마니아에 블랙의 시크한 Jeep Wrangler 오토로 세상 상남자다.

Adventure Never Ends

문득 배우 오창석이 아닌 Jeep 오너 오창석이 궁금해졌다. 화창한 겨울날, 휴일 오후 다양한 Jeep에 둘러싸인 전시장에서 색다른 인터뷰를 가졌다.

Jeep Tribe는 Jeep 공식 인플루언서 그룹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구성해 운영한다. 개그맨 김재우를 비롯해 배우 이기우, 박재민이 열혈 Jeep족으로 활동했으며, 이번에 그 바톤을 오창석이 이어받았다. 5년 전부터 Jeep 오너 드라이버로 차를 즐기고 있던지라, 이미 Jeep의 혈통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준 인물로 이보다 더 적임자는 없을 듯하다. 가족 재킷과 블랙진으로 무장한 배우 오창석, 포스부터 남달랐다.

Jeep 오너들의 입문 과정은 항상 독특한 사연이 있더군요. 오창석 씨의 경우는 어떻게 Jeep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히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어느날 우연히 주차된 블랙 Wrangler 한 대를 본 것이 시작이었어요. 웬지 단단하게 각진 듯한 디자인이 마음에 훅 든 거죠. 그렇게 한번 꽃히니까, 자꾸 더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Jeep와 밀당을 하다가, 2015년 Jeep Wrangler X Edition을 만난 거죠. Sahara 트림에 한정판으로 출시된 모델이었는데, X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됐다고 들었어요. 파워 돔 후드에 후드 데칼이 장식되어 있었고 가죽 시트까지 있어, 딱 제가 원하는 튜닝 느낌의 차였어요. 그 순간 X Edition이면 나랑 오래 갈 수 있겠다 싶어 그때부터 함께 하게 됐네요. 제가 차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알게 되었죠.

자동차는 자주 바꿀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에 자신의 기호를 파악하는 일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Jeep 덕에 알게 된 차를 고르는 본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재미였어요. 일단 평범한 세단을 몰 때는 정숙성이라던가 승차감이 최고면 되겠지 싶었는데, 제 첫 Jeep에 앉아보니 그제서야 그런 차들을 제가 지겨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Jeep는 주행하는 동안 제가 이끄는대로 반응해 주고 또 Jeep 특유의 소리들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싫증낼 틈을

오창석 배우
연기 경력 10년차인 오창석은 Jeep 오너로서의 경력도 만만치 않다.

안 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Jeep는 나를 이끄는 차가 아니라 내가 이끄는 차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제 성격과도 맞아 떨어졌구요.

의외네요. 보여지는 이미지는 동적인 느낌보다 정적인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마초적 성향도 있는 건가요?

몇 년 전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때 드라마의 이미지로만 보다가 평소 제 본모습을 보시곤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남자다운 면이 부각됐던 계기였죠. 전 운동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편이에요.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싫어해서 농구나 골프를 치면서 계속 스스로의 체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Jeep 트렁크에 농구공과 농구화, 골프 장비는 항상 챙겨다니고, 아침에 눈뜨자마자 제일 먼저 헬스장으로 출근하고 있죠.

하나의 이미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고루 갖췄기에, 오창석이라는 배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지루할 틈이 없는 연기자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 면에서 Jeep를 닮은 것도 같고요. 오랫동안 Jeep를 경험하며 느꼈던 오너로서 '재미'를 알려주세요.

음, 아직 Jeep의 끝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흔한 Jeep 마니아들처럼 오프로드를 즐기러 다니지는 않지만, 저는 일상 그 자체에서 소소하게 즐기고 있어요. 또 Sahara가 온로드 주행까지 즐길 수 있도록 나온 차라서 도심을 달리는 맛도 있고, 가끔 지방 촬영장에 직접 운전해서 갈 땐 또 새롭고 그러네요. 지금 체험 중인 Rubicon Power Top도 타기 전에는 Jeep라는 브랜드의 성격상 타협 없는 또 하나의 Sahara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건 신세계더라고요. 실내에 몸을 딱 싣고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고급진 독일 세단이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타본 오너로서 온몸으로 확실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수동으로 하드탑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이 번거로웠는데 버튼 하나로 오픈 에어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마음에 들어



Photographer Kim Joo Wen



요. 또 디자인에 민감해서 그런지 소프트탑의 패브릭 처리를 싫어하는데, Rubicon Power Top 차체의 프레임 안에서 열리고 닫히는 방식이라 더 깔끔해서 끌렸어요.

어떤 것이든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이 세상 이치니, 냉정한 오피너 시선으로 아쉬운 점도 얘기해 주세요.

즐기면서 타는 차다 보니 아무래도 관대할 수밖에 없지만, 굳이 하나 꼽자면 연비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엔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 자료를 보니 Jeep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올라갈 차량 가격과 낮아지는 유지비를 따져 평균치를 내봐야겠지만...암튼 요즘 제 관심사입니다. (웃음) 근데 결론은요, Jeep는 승차감이나 품질음, 연비 등으로 접근해서 봐야하는 차는 절대 아닙니다. 마니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최근 아이가 있는 지인 가족이 패밀리카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Rubicon Power Top을 알려줬어요.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더없이 제격인 것 같아요. Jeep

고유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대중성까지 갖췄다고 할까.

단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은 오히려 장점으로 더 부각시키는 거 보니, Jeep Tribe 자격이 충분하네요. 끝으로 오창석에게 Jeep란 어떤 것인지 한 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매일이 새로워서 오래 타는 차,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오래 탔던 차이기도 하고, 살짝 지루하다 싶을 땐 또 상상했던 대로 살짝 꾸며줄 수도 있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지금까지 Jeep의 변화를 죽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변화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요즘 오창석은 TV를 통한 연기자가 아닌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모험을 펼치는 중이다. 시대를 주름잡았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원작을 한 동명의 뮤지컬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매력의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Jeep Tribe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Jeep도 그의 도전을 열렬히 응원하는 바이다. **Jeep**



MY First RIDE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무상함을 뜻하는 말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말이긴 하나, '욕심'의 힘은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다. '캠핑'이란 두 글자가 야외에서 먹고 노는 흔한 놀이로 변질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욕심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공수래공수거'의 철학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솔로 캠퍼와 백패커들이다. 자연의 품에 안기되, 철저하게 원초적으로 치뤄내는 모험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들만의 룰이다. 텐트 대신 해먹으로 색다른 비박의 세계를 전도하는 루엠티비의 해먹 디자이너 최신엽에게 그 룰을 배워보자.

Micro Adventures

어떤 모험도 무게와 부피가 중요치 않다.

그저 용기와 상상력이라는 그림자만

따라붙으면 된다. 밤낮으로 작은 불빛 하나면

언제든 그림자와 함께 설레는 모험에 기댈 수 있다.

Jeep Wrangler와 해먹 하나면 전세계를 누비고도 남을

해먹 디자이너 최신엽과 함께 Wrangler 유랑을 떠나보자.

'마이크로 어드벤처(Micro Adventure)'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다. 작은 거인, 소리 없는 아우성만큼 반어적 기질이 느껴졌다. 마이크로 어드벤처는 일상 속에서 즐기는 소소한 모험을 이르는 말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올해의 모험가'로 선정된 엘라스테어 험프리스 작가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그는 험한 명산을 등반하거나 극한 오지를 탐험하는 대신 집 문 밖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부터 만나고 있는 작고 작은 모험들을 추천하는 진짜 모험가다.

아웃도어 브랜드 '루엣비든'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최신엽도, '해먹(Hammock)'이라는 익숙하고도 낯선 장비로 이미 마이크로 어드벤처를 실천 중이다. 또 그 실천의 중심은 '해먹과 Wrangler'라고 강하게 어필하니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제 일상을 보상받기 위해 캠퍼가 됐어요. 그림을 전공한 최신엽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많았고 체질상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부지런히 돌아다니기 위해 시작한 것이 여행이었고, 캠퍼의 삶으로 보상받기 시작했다. 5-6년의 캠핑 경력이 쌓여갈 무렵, 캠핑이 슬슬 몸을 고단하고 피로케 했다. 그러다 우연히 누군가의 해먹에 잠깐 몸을 태우고 난 뒤 폭 빠지게 되었다고 첫경험을 고백한다. 그때부터 경량 캠핑으로 갈아탄 그는 해먹 마니아가 되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 몸담고 있는 루엣비든과 만나 스타일리시한 순토종 국산 브랜드의 해먹을 직접 디자인하게 되었다. 해먹의 세계 또한 파고들면 엄청난 세상인지라, 멋모르고 외국산으로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고 동양인 체형에 알맞은 경량 해먹과 개성 있는 해먹 제작에 올인 중이다.

최신엽
일러스트레이터 ·
디자이너

아웃도어 브랜드
루엣비든의
디자인 실장.
각종 매거진의
일러스트레이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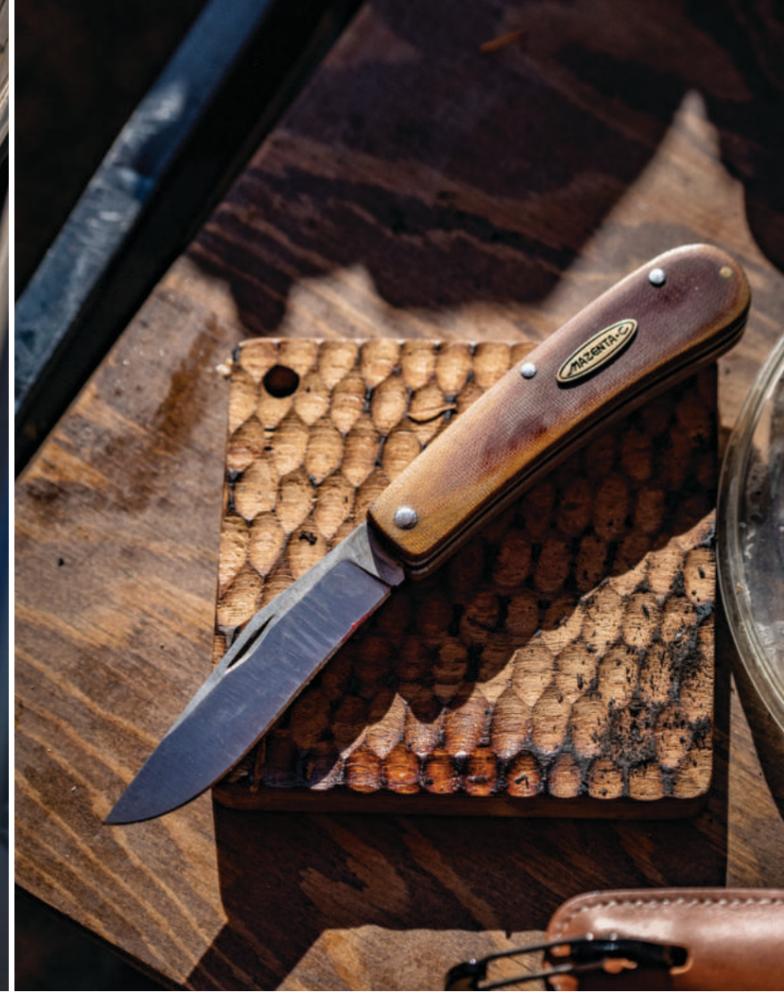
해먹으로 불면증도 사라지고 이제 꿀잠자요. 최신엽이 자랑하는 해먹은 솔로 캠핑에 가장 특화된 방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잘 곳을 만들었다가 가장 빠르게 해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어쩐지 허공에 매달려 잠을 청하는 일은 너무 불안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듯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해먹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단다. 그도 그럴 것이 해먹은 태초에 적을 둔 엄마 뱃속처럼 아늑하고 절대적 안정감을 맞출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양끝에서 당겨주는 힘 덕분에 공중에 사뿐히 들어올려진 채 우주의 무중력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구나 싶다. 그 역시 2년간의 불면증으로 누구보다 잠이 고됐고, 해먹에서 단 한 시간의 낮잠을 기점으로 불면을 탈출했다고 한다. 이쯤하면 해먹 예찬론자가 되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아웃도어의 찰떡 궁합, 바로 Jeep와 해먹입니다. Jeep와 인연은 우연히 참석한 Jeep 행사에서 시작됐고, 현재 그는 Jeep Tribe 2기로 활동할만큼 Jeep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솔로 캠핑이나 비박을 즐기다 보면 외진 곳이거나 오지일 경우가 다반사인데, Jeep와 함께라면 불필요한 걱정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망설임없이 길을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Jeep와 해먹은 최고의 조합이 된다. 게다가 해먹을 치기 위해선 주변에 나무처럼 기동 역할을 해줄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때 Jeep의 하드탑이나 소프트탑을 탈거하면, 차체 프레임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Jeep와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또 하룻밤을 자연에 신세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신나지 아니한가. 가끔은 함께 몽친 솔로 캠퍼들이 최대 5-6명까지 Jeep 한 대로 해먹 트리를 만들어 잘 수도 있으니, 이쯤하면 Jeep와 해먹의 찰떡 궁합 인정!



Photographer: Kimjoo Won





여행과 모험, 이제 일상에서 즐겨보세요. 자신의 최고 무기로 Jeep와 해먹을 끄는 최신업은 여행도 색다르게 하는 편이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하루가 멀다하고 놀고 즐기는 사진이 가득하다. 자칫 팔자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그의 여행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액티비티를 즐기는 그는 콘셉트가 있는 여행을 좋아해, 항상 목표를 두어 찾아가는 장소마다 무언가 배우거나 습득한다. 이를테면 바닷가 여행을 갈 경우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식이다. 인터뷰 이후에도 카약 도전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단다. 또 해먹 하나로 평일 밤에도 동네 뒷산에서 비박을 하거나 짬나는 오후에 낮잠으로 짧은 휴식을 갖는다 하니, 험프리스의 마이크로 어드벤처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거창한 계획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작은 모험을 실 새 없이 감행하는 것은 분명 모험의 속도가 다를 것이다. 후자를 선택한 최신업은 그래서 지금 질주 중이다.

비박은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다. 프랑스어로 비브아크 ^{Bivouac}, 독일어로 비바크 ^{Biwak}라 하며 '야영'을 뜻한다.

비박을 하는 이들에게 고향. 알고보니 비박은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다. 프랑스어로 비브아크 ^{Bivouac}, 독일어로 비바크 ^{Biwak}라 하며 '야영'이란 뜻이다. 즉, 텐트 없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하룻밤을 자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히 비박이나 솔로 캠핑, 백패킹은 자연의 품에서 잠깐 삶을 그어가는 시간인 셈이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의 짐을 싸라고 권한다. 일회용품은 최소화하고 반조리된 음식을 준비해 데워서 먹거나 고깃덩어리로 간단하게 해결하라고 부탁한다. 또 나무는 주변의 떨어진 가지나 죽은 나무를 활용하고 돌아올 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도 챙겨올 것을 강조한다. 마이크로 어드벤처의 실천가로, 해먹 디자이너로, Jeep 마니아로, 최신업은 오늘도 작고 작은 일상의 모험을 찾아 떠난다. **Jeep**



Test Drive

RENEGADE

2020 Renegade Limited 1.6 TD

2020년, 자유와 모험의 아이콘 Renegade가 1.6 터보 디젤 엔진으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

소형 SUV의 수식어가 어울릴만큼 귀여운 외모를 지녔지만,

그 속에 감춰진 본능은 타고난 Jeep의 계보를 따른다.

한겨울 터프한 어드벤처를 꿈꾼다면, Renegade가 정답이다.

더 아무지고 강해진 반항아를 만나보자.



Renegade Limited 1.6 TD

2020년 Renegade가 1.6 터보 디젤 엔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한겨울 터프한 어드벤처를 꿈꾸는 청춘들이여, 이제 Renegade와 만날 시간이다.

신호 대기에 서면 습관처럼 주변 차량을 살핀다. 사람을 대할 땐 언제나 열굴부터 마주하지만, 운전할 때는 주변 차들의 뒷모습만 보이기 때문이다. 또렷한 후진등 불빛들이 개성대로 메이크업을 한 듯 각각각색의 표정을 짓고 있다. 직선, 사선, 동그라미로 일관한 후진등 중에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정사각형의 네모 안에 베이블레이드의 팡이를 연상시키는 불빛이다. 묘하게 매력 있다. 뒷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출발하면 서도, 연신 눈으로는 저 멀리 사라져가는 녀석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그것이 Renegade와의 첫 대면이었다.

그 인연이 온 좋게 이번 2020년식 Renegade Limited 1.6 TD로 이어져, 설레는 만남을 갖게 되었다. Jeep 집안의 가문 좋은 혈통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막내의 입지다 보니 귀여움과 애교를 담당하는 줄 알았다. 편견이었다. 도어를 열기 위해 다가선 순간부터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차체와 차고가 여느 SUV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근육질 바디였고, 운전석에 탑승한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1.6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한 2020년식 Renegade는 기존 Renegade보다 연비면에서 월등하게 차이를 보인다. 커먼 레일 고압 연료 분사 시스템과 디젤 미립자 필터를 특징으로 하는 디젤 엔진으로 효율성을 높였고, 6단 자동 변속기가 표준 사양으로 장착되어 있다. 또 엔진 스탑/스타트^{ESS} 기술이 적용되어 출퇴근길이나 도심길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확실하게 단속해준다.

운전석 시트에 안착 후 시동 버튼을 누르려니, 버튼 주변에 쓰여진 'To New Adventures!'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쩐지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모험 가득한 판타지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Jeep답게 출발부터 설레임이다. 탁월한 주행 능력이야 익히 아는바, 어디든 박차고 나가 길이란 길은 모두 밟아주고 싶으나 Renegade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로 했다. 먼저 일상적인 도심길로 나섰다. 디젤임에도 꽤 정숙하고 스티어링 휠의 묵직함도 좋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전면 와이드 유리라 좌우 창문이 마치 스펙터클 영상을 관람하는 스크린^X처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한다. 사실 자동차의 A필러 부분은 자동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프레임으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운전자에게 불가피한 시각지대를 만드는 구조다. 또

A필러는 차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 디자인 요소기도 하다. Renegade는 그 지점의 디자인에 힘을 실어 시각지대를 확연하게 줄였고, 전방과 양쪽 사이드까지 한눈에 굽어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원한 시야각에 눈이 즐거웠다. 이는 상대적으로 야간 주행에도 큰 효과가 있었고,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에게 보다 편리할 듯하다.

본격적인 주행을 위해, 고속도로를 타고 속력을 높였다. 세단에 익숙해진 몸이, 지상고가 높은 Renegade의 앵글에 절로 반응했다. 발끝에 힘을 싣는 족족 매끄럽게 속도를 높여주니 이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 성능 덕이었다. 두 개의 클러치로 부드러운 변속은 물론 편안한 주행까지 책임지니, 출발과 가속 모두 유연하다. 또 시각지대 모니터링 기능을 통한 경고음 알림 덕분에 차선변경도 편리했다. 장거리 운전으로 달리는 고속 주행시 크루즈 컨트롤도 Renegade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다.

국도로 다시 살짝 빠져 비포장길로 달릴 때도 망설임이나 조바심이 나지 않았다. Renegade는 험로나 고르지 못한 길에서도 접지력이 좋은 편이었다. 한적한 모래사장을 만났을 때, 주춤거리거나 후진을 하는 것이 못할것이라면, Renegade는 놀이동산의 티켓이라도 받은 양 본능적으로 모래 위를 질주한다. 피겨 스케이트를

타듯, 모래밭을 헤엄치며 환호성을 지른다. 운전자보다 차가 더 신이 난 모양새다.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오픈 에어링을 시도했다. 버튼만으로 쉽게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 들어오는 겨울 바다 바람이 짝조름하면서도 따스했다. 뜨거운 탕 속에서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이쯤 하니 이 차의 분명한 정체성이 보인다. 여행을 즐기고 아웃도어 활동이 빈번하다면, 액티비티한 계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Renegade여야 한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기본이고, 짐과 장비를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넓은 트렁크도 유용하다. 또 루프 랙이나 캐리어를 추가 장착해 적재 공간까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있다. 특히 공간 구성에 있어 2열 60:40 폴딩이 가능해, 차박의 추억까지 시도해 볼 수 있다.

돌아오는 길, Renegade와의 아간 새벽 주행은 또다른 감성으로 다가왔다. 하이브리드 타입의 클러스터를 통해 속도와 RPM 등의 다양한 주행 정보와 자동차 스스로 제어하는 상황까지 파

여행을 즐기고
아웃도어 활동이
빈번하다면,
액티비티한
계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Renegade여야
한다.

악할 수 있었다. 요즘 '엉따'로 통하는 시트 열선은 흔하다 치더라도, 핸들의 열선 기능은 손뿐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주는 신박 기능 중 하나다. 또 빛이 부족한 길에서 Renegade의 애교 넘치는 LED 시그니처 링과 안개등, 프리미엄 헤드램프는 더 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 하나, 6개의 스피커와 서브 우퍼 구성이다.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의 노래, 'Come out and play'의 드럼 비트와 중저음 베이스가 차 안 공기로 퍼질 때, 귀는 물론이요 심장까지 전해지는 박동은 감동 그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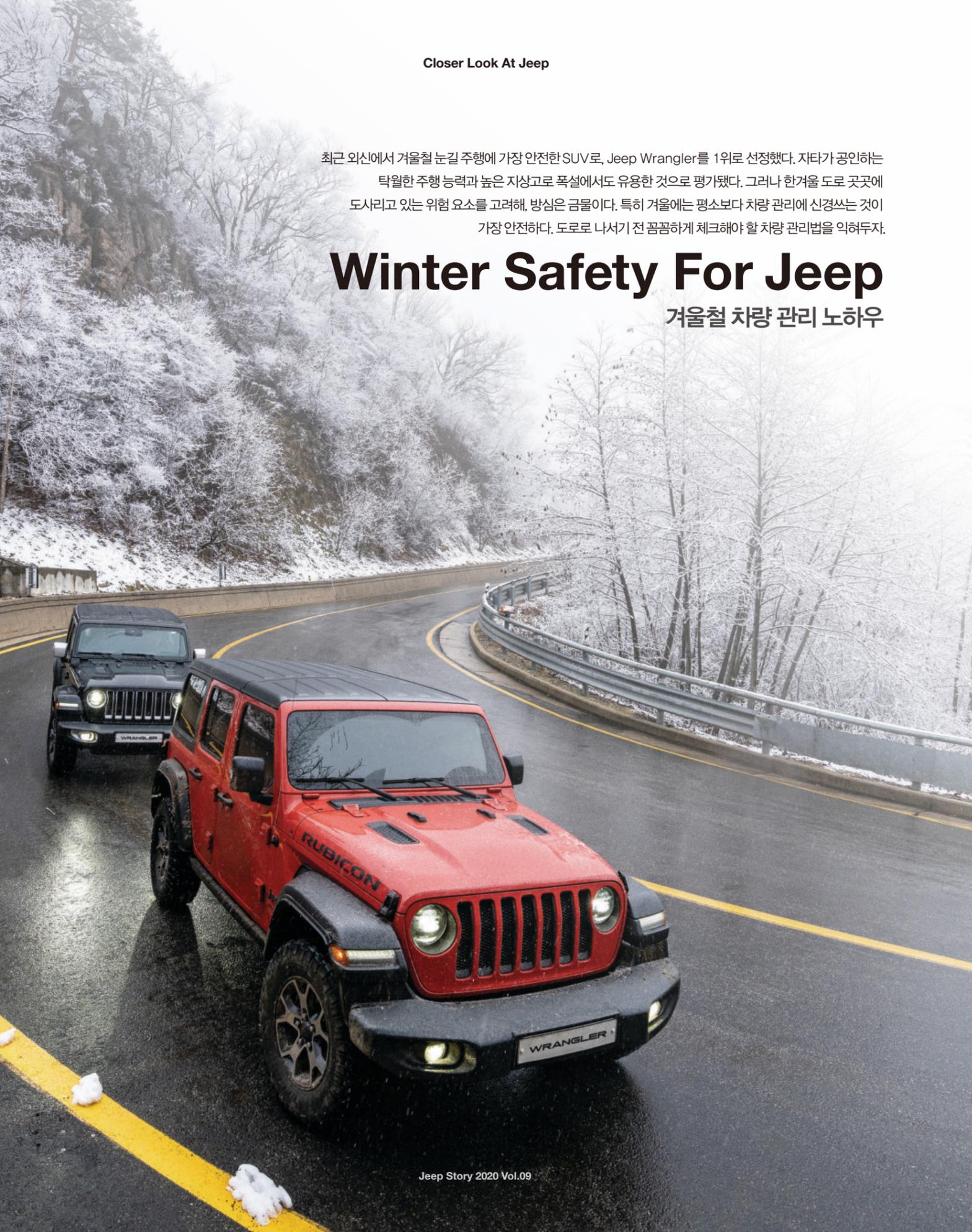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보조 바퀴를 떼고 마침내 두발 자전거로 땅 위를 달렸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엄청난 속도에 겁도 났지만, 핸들을 꽉 움켜쥔 채 느꼈던 쾌감까지 온몸으로 기억한다. Renegade Limited 1.6 TD와의 짧은 데이트도 그렇게 지나 갔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느끼는 중이다. 이제 당신이 즐길 차례다! **Jeep**



최근 외신에서 겨울철 눈길 주행에 가장 안전한 SUV로, Jeep Wrangler를 1위로 선정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주행 능력과 높은 지상고로 폭설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겨울 도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를 고려해,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겨울에는 평소보다 차량 관리에 신경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도로로 나서기 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차량 관리법을 익혀두자.

Winter Safety For Jeep

겨울철 차량 관리 노하우



타이어와 공기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타이어다. Jeep는 4륜 구동 시스템으로 기본기가 탄탄하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는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겨울에는 제동력이 훨씬 유리한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낮은 기온으로 공기 수축 현상이 일어나 여름에 비해 공기압이 낮아지므로,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주 체크하고 겨울철엔 10% 정도 공기 주입량을 늘려주는 것도 좋다.

와이퍼와 워셔액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Jeep는 비포장길·산길을 달리는 일이 많아, 흙탕물이 많이 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워셔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시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와이퍼 또한 소모품이므로 마모 상태를 체크하고 사용이 빈번해지는 겨울철에 더욱 신경써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와이퍼 작동시 소리가 많이 나거나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다면, 교체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비상 안전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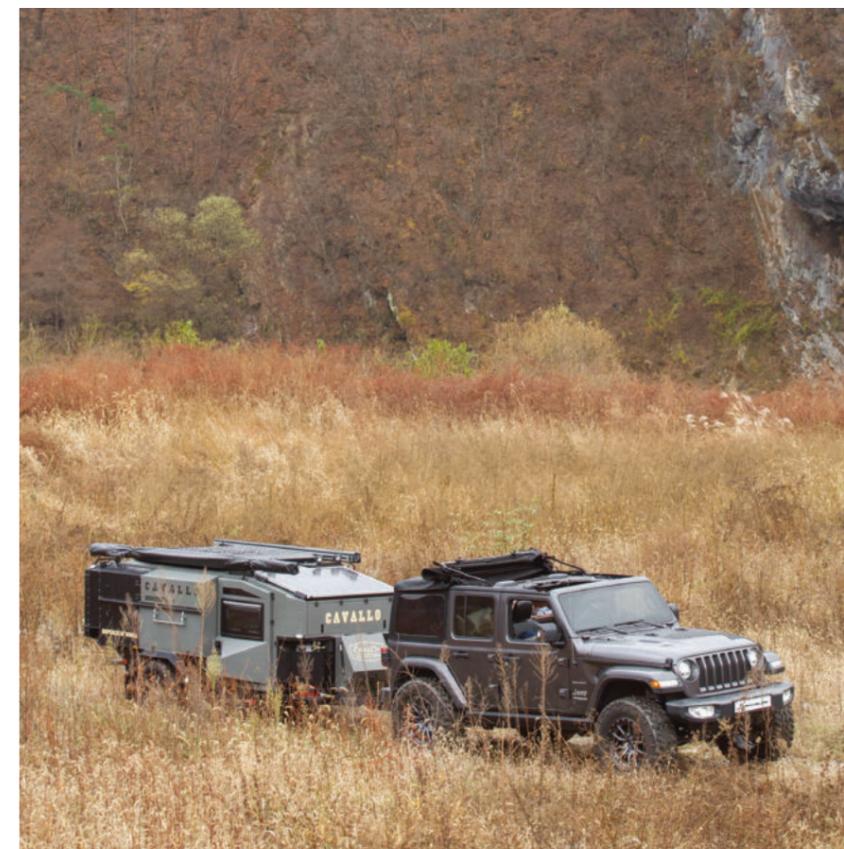
겨울 아웃도어 활동에도 단단히 한몫하는 Jeep이기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된다고 안심할 수 있겠으나, 지형에 따라 무용지물이 된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 키트나 응급 처치 박스를 구비해두자. 또 진흙이나 눈, 모래 등에 빠질 때를 대비해 타이어 패드나 견인 후크를 챙기면 든든하다. 보험 하나 드는 기본으로 안전 장비를 챙겨두는 것도 Jeep 오너의 센스!

오프로드는 커플 Jeep 운행

Jeep 마니아들은 오프로드를 달릴 때 규칙이 하나 있다. 절대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것.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끌어줄 또 하나의 Jeep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프로드 운행시 커플 Jeep로 짝을 지어다니는 것을 권장한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맛도, Jeep 오너들끼리 누리는 특권이구나. **Jeep**

Adventure in Social Media

Social Media 코너는 Jeep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Jeep 오너들이 직접 즐기는 모험과 도전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에너지 넘치는 Jeep의 어드벤처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오너들이 직접 촬영한 Jeep의 멋을 Social Media에서 만나보세요.



♥ 👤 📍
 @ shawnino_camp
 #캠핑맨x지프
 역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다 올라타는 그 맛. 다음엔 도강을 해보는걸로
 #jeep #jeeptribe #지프족 #RIDE_JEEP @jeepkorea



♥ 👤 📍
 @ iinsiick
 좋은 휴한기였다. 🌸
 .
 #체로키 #오프로드 #차박 #휴한기 #파주 #장산전망대



♥ 👤 📍
 @ kim_hyunjun_djjohn
 Don't Hold Back 🇺🇸 #JEEP #JEEPKOREA
 #RENEGADE #지프 #레니게이드
 #지프레니게이드 @jeepkorea #gopro
 #goprolife #goprokr #gopro7black #고프로 #고프로라이프 #고프로코리아 #슈퍼포토



♥ 👤 📍
 @ jisoo.park_
 가고싶다 산에!! 🏔️
 #wranglerrubicon #wrangler #rubicon
 #랭글러 #루비콘 #오프로드 #임도 #계곡
 #라면 #힐링 #자연 #4x4



♥ 👤 📍
 @ kimgeunhyeok
 #이륙준비 🛫 #활주로 #지프
 #랭글러 #루비콘 #제주지프 #랭글러메니아
 #지프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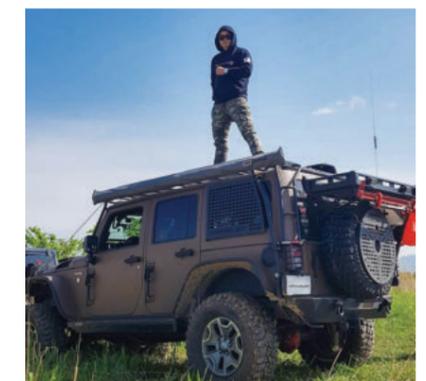
♥ 👤 📍
 @ paju_half_cut
 처음이라 어색한건 다음엔 없애고 처음이라 궁금한건 다음엔 또물고 처음이라 다행인건 다음엔 또있고 무엇보다 좋았던건 혼자가 아닌거 #랭글러yj #jeep #yj
 #짚스타그램 #올드카 #랭글러 #올드짚



♥ 👤 📍
 @ don_hold_back
 #첫출 #설국 투어 D-40 기대하시랏 #지프랭글러 #지프 #랭글러 #지프스타그램 #일상스타그램 #greatoutdoors #winterofjeep #jeeps #jeepcrew #jeepend #jeepin #jeeporn



♥ 👤 📍
 @ geevnoe
 #jeepparkingonly #jeepwrangler #jirubicon #gotflex #letsgoplaces #offroading #일요일오후 #파일럿라트레일 #지프주차 #지프랭글러 #루비콘 #윌트 #미국오프로드



♥ 👤 📍
 @ teddy_0916
 사람도 차도 살아 있네 ㅋㅋ 🤪
 #wrangler #jeep #overlandlife #teraflexsuspension #카리스마지프 #랭글러오버랜드 #랭글러메니아 #랭글러루비콘

참여방법

여러분의 Instagram에 Jeep와의 일상을 태그 #jeepkorea와 함께 올려주세요. 채택된 분들께 커피 기프트콘과 해당호 매거진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Jeep Wave는 Jeep를 운전하는 오너끼리 길에서 만나면 수신호로 주고 받는 인사입니다.
Jeep를 소유한 오너들간의 공동체 의식과 존중이 맞물려,
서로의 친분까지 쌓을 수 있는 즐거운 기회가 됩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 Jeep와 만나면, 핸들 위로 두 손가락을 가볍게 뺨어 올려주세요.
Hello 하며 반갑게 나누는 손인사를 통해,
오늘도 길 위의 Jeep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Do the Jeep Wave.



Jeep 전용 분당 전시장 OPEN

지난 11월에 확장 이전한 분당 전시장은 17번째 Jeep 전용 전시장이다. 약 273평의 3층 단독 건물로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는 분당 Jeep 전시장은, 세심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리뉴얼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터치식 스펙 보드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 존(Consulting Zone)'에서는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Jeep의 대표 차량 모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히어로 카 존 (Hero Car Zone)을 비롯하여 차량의 컬러와 디자인을 원하는 옵션으로 적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피팅 라운지(Fitting Lounge)', 편리한 차량 출고를 위한 '딜리버리 존(Delivery Zone)'까지 고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분당 Jeep 전시장은 경기도 내 수입차 등록률과 판매량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향후 지역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더욱 차별화된 눈높이 서비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28



Jeep Cherokee 트레일호크, 1월 출시

Jeep의 중형 SUV, Cherokee 라인업에 트레일호크 트림을 추가되어 2020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트레일호크는 이미 Jeep의 각 세그먼트에 포진되어 있는 버전으로, 군용차 평가 기관에서 부여하는 트레일 레이티드(Trail Rated®) 인증을 받은 배지가 부착되어 있다. 극한의 코스를 모두 통과한 Cherokee 트레일호크는 3.2L 펜타스타 V6 엔진을 채용, 9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셀렉 터레인(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극강의 주행을 자랑한다. 또 트레일호크 후드 데칼과 측면의 트레일 레이티드 배지, 후면의 트레일호크 배지가 디자인에 매력을 더한다.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을 원하는 고객들을 만족시켜줄 Cherokee 트레일호크는 전국 Jeep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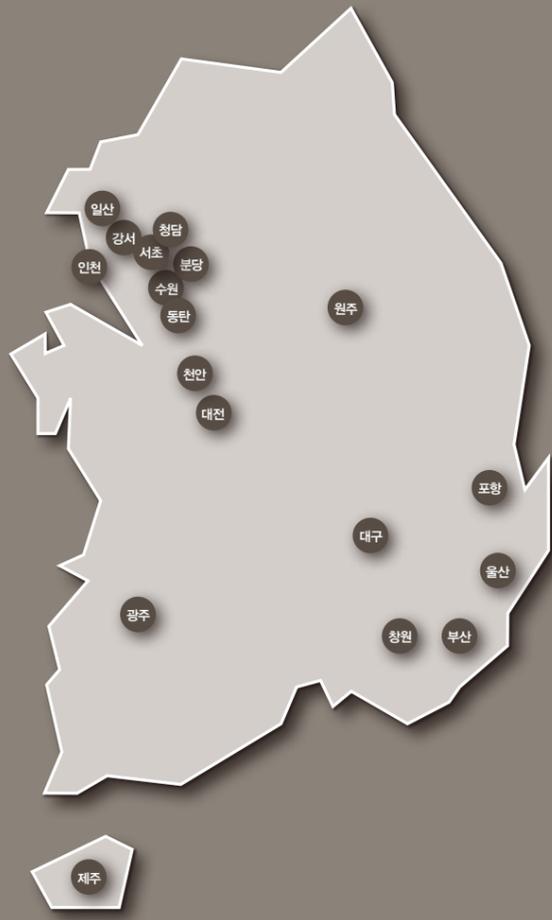
JeepxSONY 오프로드 차량 촬영 세미나 진행

지난 12월 14일, Jeep는 소니코리아와 함께 박진감 넘치는 오프로드 차량 촬영 세미나를 열어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독보적인 Jeep만의 터프한 주행과 우수한 성능의 SONY 카메라와의 콜라보로, Jeep 특유의 디자인과 속도감을 담은 차량 사진 촬영 노하우를 배운 후 현장에서 Jeep와 함께 실전까지 치르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문 사진작가 김주원과 레이싱 모델 오아희가 참여했고, 진흥발을 무한히 추구하는 Jeep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등 그 열기가 대단했다. 촬영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Jeep 드라이빙의 기회까지 제공, Jeep의 4륜 구동 파워를 실감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는 후문이다.



Jeep® Showroom Guide

2020년, 전국 Jeep 시대를 시작합니다.
총 18개의 Jeep 전용 전시장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와 차별화된 공간으로
고객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모든 SUV의 시작, Jeep.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청담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6
Phone 02-515-1515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87
Phone 032-463-3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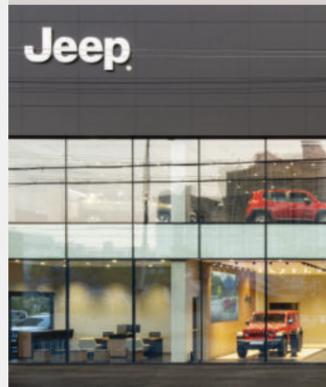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19
Phone 02-525-004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Phone 031-237-47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Phone 080-982-8000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26
Phone 080-981-80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28
Phone 031-708-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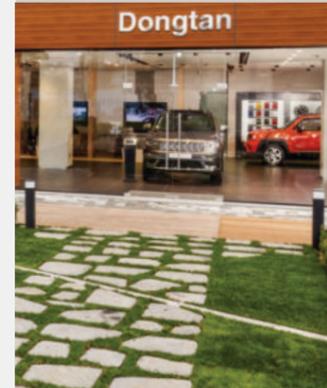
천안 전시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71
Phone 041-523-1551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95
Phone 053-761-0660



부산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9
Phone 051-626-0088



동탄 전시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77-5 1층
Phone 031-377-3322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25
Phone 062-384-8337



포항 전시장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30
Phone 054-277-5336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56
Phone 052-257-3009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65
Phone 042-672-8000



원주 전시장 *오픈 예정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854
Phone 033-731-1300



창원 전시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87
Phone 055-296-1001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54
Phone 064-724-9990

WRANGLER



Feature

WRANGLER

- 스카이 원-터치 파워탑 (RUBICON POWER TOP 모델)
- 2.7:1 셀렉트-트랙 풀타임 4WD 시스템 (OVERLAND 모델)
- 4 : 1 락-트랙 HD 풀타임 4WD 시스템 (RUBICON 모델)
- 새로운 파워돔 디자인, 리어 토우 후크, 탈부착 가능한 도어와 접이식 윈드실드
- 하드 스페어 타이어 커버, 도어 사이드 스텝 (OVERLAND 모델)
- 앞좌석 열선 가죽 시트,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 Uconnect 8.4인치 터치 스크린 및 내비게이션*
- ParkSense® 전/후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사각지대 /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ParkView® 후방 카메라
- 애플 카플레이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RUBICON 전모델 / OVERLAND 모델 적용

* 사양 및 배기량 · 연비 사항은 2019년식 기준. 2020년식 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SPORT 2DOOR 2.0	₩46,400,000
SPORT 4DOOR 2.0	₩49,400,000
RUBICON 2DOOR 2.0	₩55,400,000
RUBICON 4DOOR 2.0	₩58,400,000
OVERLAND 4DOOR 2.0	₩61,400,000
RUBICON 4DOOR POWER TOP	₩61,900,000

* 2019년식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 공차중량

SPORT 2DOOR 2.0	1,995cc 1,830kg
SPORT 4DOOR 2.0	1,995cc 1,940kg
RUBICON 2DOOR 2.0	1,995cc 2,000kg
RUBICON 4DOOR 2.0 RUBICON 4DOOR POWER TOP	1,995cc 2,120kg
OVERLAND 4DOOR 2.0	1,995cc 2,010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SPORT 2DOOR 2.0	9.6km/ℓ 4등급 (도심연비:8.9km/ℓ, 고속도로연비:10.8km/ℓ) 179g/km
SPORT 4DOOR 2.0	9.0km/ℓ 5등급 (도심연비:8.3km/ℓ, 고속도로연비:10.0km/ℓ) 193g/km
RUBICON 2DOOR 2.0	8.7km/ℓ 5등급 (도심연비:8.1km/ℓ, 고속도로연비:9.5km/ℓ) 201g/km
RUBICON 4DOOR 2.0 RUBICON 4DOOR POWER TOP	8.2km/ℓ 5등급 (도심연비:7.7km/ℓ, 고속도로연비:8.8km/ℓ) 210g/km
OVERLAND 4DOOR 2.0	9.0km/ℓ 5등급 (도심연비:8.3km/ℓ, 고속도로연비:10.0km/ℓ) 193g/km

RENEGADE



Feature

RENEGADE

-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9단 자동변속기
- 전자 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 (ESC)
- 경사로 밀림 방지 (HSA)
- 앞좌석 열선 시트 및 열선 스티어링 휠
- ParkView® 후방 카메라*
- 사각지대 /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ParkSense® 전/후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 고(ACC)(Limited AWD)
- LED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
- Uconnect 8.4인치 터치 스크린 및 내비게이션*
- 클러스터 7인치 TFT 컬러 디스플레이*
- 애플 카플레이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LIMITED 모델 적용

* 사양 및 배기량 · 연비 사항은 2019년식 기준. 2020년식 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LONGITUDE 2.4 FWD	₩33,900,000
LIMITED 2.4 FWD	₩36,900,000
LIMITED 2.4 AWD	₩39,900,000
LONGITUDE 1.6TD FWD * 출시 예정	₩35,100,000
LIMITED 1.6TD FWD * 출시 예정	₩38,600,000

* 2.4 G 2019년식 기준
1.6 TD 2020년 출시 예정
상기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 공차중량

LONGITUDE 2.4 FWD LIMITED 2.4 FWD	2,360cc 1,460kg
LIMITED 2.4 AWD	2,360cc 1,585kg
LONGITUDE 1.6TD FWD LIMITED 1.6TD FWD	1,598cc 1,460kg * 출시 예정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LONGITUDE 2.4 FWD LIMITED 2.4 FWD	10.0km/ℓ 4등급 (도심연비:8.9km/ℓ, 고속도로연비:11.9km/ℓ) 171g/km
LIMITED 2.4 AWD	9.2km/ℓ 5등급 (도심연비:8.0km/ℓ, 고속도로연비:11.3km/ℓ) 188g/km
LONGITUDE 1.6TD FWD LIMITED 1.6TD FWD	* 출시 예정

COMPASS



Feature

COMPASS

- LED 시그니처 바이저는 HID 헤드램프 및 LED 테일램프
- Jeep® Active Drive 시스템
- 셀렉-터레인(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9단 자동변속기
- 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Uconnect 8.4인치 터치 스크린 및 내비게이션*
- 애플 카플레이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 Alpine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 앞좌석 열선 시트 및 운전석 8-방향 파워 시트
- 클러스터 7인치 TFT 컬러 디스플레이*
- 사각 지대 /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ParkView® 후방 카메라 및 ParkSense®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LIMITED 2.4 모델 적용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LONGITUDE 2.4	₩39,900,000
LIMITED 2.4	₩43,400,000

* 2019년식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 공차중량
LONGITUDE 2.4 | LIMITED 2.4 2,360cc | 1,640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LONGITUDE 2.4 G | LIMITED 2.4
 9.3km/ℓ | 5등급 (도심연비:8.2km/ℓ, 고속도로연비:11.2km/ℓ) | 184g/km

* 사양 및 배기량 · 연비 사항은 2019년식 기준. 2020년식 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CHEROKEE



Feature

CHEROKEE

- Jeep® Active Drive II 4WD 시스템*
- 셀렉-터레인(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
- 패들 시프트 적용 9단 자동 변속기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 고(ACC)**
-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보행자 감지 비상 브레이크)**
- LaneSense 차선 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
- ParkSense® 평행/수직 주차 보조 시스템 (Longitude 2.4 제외)
- ParkSense® 전/후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Longitude 2.4 제외)
- LED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 포그램프, 데이타임 러닝 램프
- 뒷좌석 열선 시트 (Overland 2.2 적용)
- 프리미엄 나파 (Nappa) 가죽 시트
- 핸드프리 파워리프트게이트
- 적재 공간이 향상된 트렁크
- 애플 카플레이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LIMITED, OVERLAND **LONGITUDE 2.4 HIGH, OVERLAND 모델 적용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LONGITUDE 2.4	₩44,900,000
LONGITUDE HIGH 2.4	₩47,900,000
LIMITED 2.2	₩56,900,000
OVERLAND 2.2	₩58,900,000

* 2019년식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0년 Trailhawk 3.2 출시 예정

배기량 | 공차중량
LONGITUDE 2.4 | LONGITUDE HIGH 2.4
 2,360cc | 1,830kg
LIMITED 2.2 | OVERLAND 2.2
 2,184cc | 2,010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LONGITUDE 2.4 | LONGITUDE HIGH 2.4
 8.6km/ℓ | 5등급 (도심연비:7.2km/ℓ, 고속도로연비:11.3km/ℓ) | 200g/km
LIMITED 2.2 | OVERLAND 2.2
 11.1km/ℓ | 4등급 (도심연비:9.9km/ℓ, 고속도로연비:12.9km/ℓ) | 175g/km

* 사양 및 배기량 · 연비 사항은 2019년식 기준. 2020년식 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GRAND CHEROKEE



Feature

GRAND CHEROKEE

- Natura-Plus 최고급 가죽 / 오픈 포어 우드 트림**
- 앞/뒷좌석 열선 가죽 시트 및 앞좌석 통풍 시트
- CommandView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 19-스피커 하만 카돈 하이퍼모션 사운드 시스템**
- 퀘드라-트랙II (Quadra-Trac® II) 4WD 시스템
- 파워 리프트게이트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 고 (ACC)*
-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보행자 감지 비상 브레이크)*
- LaneSense 차선 이탈 방지 경고 플러스 시스템
- 사각 지대 /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 애플 카플레이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OVERLAND, SUMMIT **SUMMIT 모델 적용

* 사양 및 배기량 · 연비 사항은 2019년식 기준, 2020년식 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Price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LIMITED 3.6	₩61,900,000
LIMITED-X 3.6	₩62,900,000
OVERLAND 3.6	₩69,400,000
LIMITED 3.0 TD	₩71,400,000
SUMMIT 3.6	₩73,400,000
OVERLAND 3.0 TD	₩78,400,000
SUMMIT 3.0 TD	₩82,400,000

* 2019년식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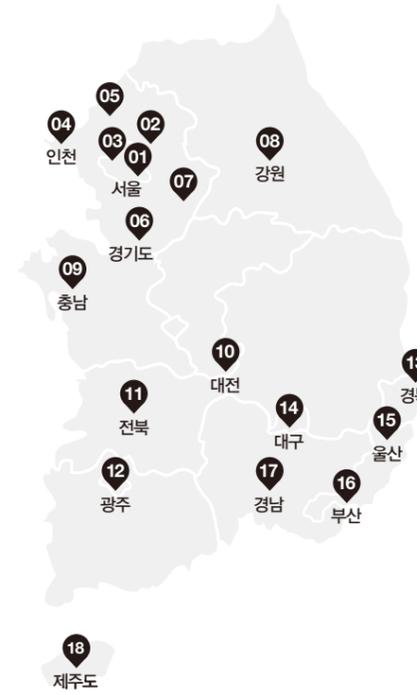
배기량 | 공차중량

LIMITED 3.6 | LIMITED-X 3.6 3,604cc | 2,205kg
OVERLAND 3.6 3,604cc | 2,270kg
LIMITED 3.0 TD 2,987cc | 2,440kg
SUMMIT 3.6 3,604cc | 2,255kg
OVERLAND 3.0 TD 2,987cc | 2,440kg
SUMMIT 3.0 TD 2,987cc | 2,475kg

복합연비 | 등급 | CO₂ 배출량

LIMITED 3.6 | LIMITED-X 3.6 | OVERLAND 3.6 | SUMMIT 3.6
 7.9km/ℓ | 5등급 (도심연비:6.9km/ℓ, 고속도로연비:9.5km/ℓ)
 | 223g/km

LIMITED 3.0 TD | OVERLAND 3.0 TD | SUMMIT 3.0 TD
 9.3km/ℓ | 5등급 (도심연비:8.3km/ℓ, 고속도로연비:10.7km/ℓ)
 | 212g/km



Service Center

서울

❶ 씨엘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24
 연락처 1588-4450

❷ 렉스모터스 성동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28
 연락처 02-462-3131

❸ 프리아모터스 영등포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30길 30
 연락처 02-6925-0393

인천

❹ JK 모터스 인천 서비스센터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13
 연락처 032-881-3006

경기도

❺ 프리아모터스 일산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50-20
 연락처 031-922-0117

❻ 보성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9
 연락처 031-237-4230

❼ 빅토리오토토모티브 분당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32
 연락처 031-896-0005

강원

❽ 강원모터스 원주 서비스센터
 위치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854
 연락처 033-766-6301

충남

❾ 비전오토모빌 천안 서비스센터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3-6
 연락처 041-523-2211

대전

❿ 비전오토모빌 대전 서비스센터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65
 연락처 042-637-8000

전북

⓫ 라온모터스 전주 서비스센터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강2길 3-26
 연락처 063-271-7300

광주

⓬ 선일모터스 광주 서비스센터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길 39
 연락처 062-676-8371

경북

⓭ 경북모터스 포항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30
 연락처 054-283-5336

대구

⓮ 대경모터스 대구 수성구 서비스센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양로 177
 연락처 053-564-0110

울산

⓯ 우진모터스 울산 서비스센터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166번길 5
 연락처 052-272-7600

부산

⓰ 우진모터스 부산 서비스센터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01
 연락처 051-704-0065

경남

⓱ 대경모터스 창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3길 1
 연락처 055-296-1005

제주

⓲ 프리아모터스 제주 서비스센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25
 연락처 064-745-4588

※ 제품 사진, 사양, 색상, 가격 등의 정보는 본 매거진이 출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까운 Jeep® 전용 전시장에 연락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Jeep Story 구독 신청

계절의 시작과 함께 발간되는
매거진 <Jeep Story>의 정기 구독을 원하는 분은
이름과 연락처를 info@jeep.co.kr로
보내주세요.

www.jeep.co.kr

